

욕망의 거울 앞에서

『향연』 기말 레포트

영어영문학과
2015***** 도초록

I. 서론

‘에리스드 스트라 에루 오이트 우베 가푸르 오이트 온 워시(Erised stra ehru oyt ube cafru oyt on wohsi)’ 이 문장은 거울에 비춰 봐야지만 제대로 된 뜻을 얻을 수 있다. ‘I show not your face, but your hearts desire’ ‘나는 너의 얼굴이 아닌 마음의 욕망을 보여 준다’는 의미이다. 이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에서 나오는 ‘욕망의 거울’의 맨 위에 새겨져 있는 글귀이다. 즉 여기서 나라는 대상은 거울로, 이 거울은 거울 앞에서 있는 사람의 내적 욕망을 투영하여 보여준다는 것이다. 해리가 이 거울을 처음 마주했을 때, 그는 거울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향하여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한 번도 만나 보지 못했던 자신의 부모님이었다. 강렬한 기쁨과 동시에 슬픔을 느끼며, 해리는 그 이후에도 거울에 비춰진 부모님의 환상을 보기 위하여 계속 거울을 찾아간다. 거울 앞에 앉아 하염없이 거울을 바라보는 해리에게 덤블도어는 말한다. “이 거울은 우리에게 지식이나 진실을 보여주지 않는단다. 사람들은 이 거울이 보여주는 것이 진짜인지 혹은 심지어 가능한 지조차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이 본 것에 눈을 잃거나 미쳐서, 이 거울 앞에서 헛되이 시간을 보냈지.”¹⁾

욕망의 거울은 존재가 결핍으로 인하여 무의식적으로 강렬하게 욕망하는 부분을 충족시켜 줄 만한 환상 이미지를 제공해 준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 봐도 그것은 있지 않고, 손을 뻗으면 닿지 않는다. 거울에 비춰진 자신은 욕망하던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환상으로 이루어진 충족은 진실이 아니기에 거울에서 벗어나는 순간 충족감은 손에 쥔 모래알처럼 빠져나가 버리고 존재는 자신의 결핍된 부분을 이전보다 더욱 선명하게 직시하게 될 뿐이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거울 앞에서 헛되이 시간을 보내게 되고, 욕망을 충족시키는 텅 빈 충족감을 욕망하기에 이르게 된다.

만약 욕망의 거울을 마주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 거울이 주는 이미지가 진실이 아님을 직시하고 그 자리를 단번에 벗어날 수 있을까. 사실상 욕망의 거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소설과 현실이 다른 점이 있다면, 현실에서는 욕망의 거울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 때, 우리는 대상의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 같지만 실은 무의식 속의 욕망의 거울을 통해서 대상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대상을 환상화하고 그 환상화 된 것을 다시금

1) 조앤 k. 롤링,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김혜원 역, 문학수첩, 2001, 제1권 II, p79.

대상 그 자체라고 여기게 된다.²⁾ 즉 욕망하는 우리는 나의 없음을 바라보는 대상에게 상상적으로 투영하여, 대상은 내가 결여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또 대상이 가지고 있는 있음이 나의 없음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무의식 속의 욕망의 거울을 통한 환상적 구조 속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는 없을까. 해리에게 욕망의 거울이 만드는 환상을 경계하라고 일러준 것이 덤블도어라면, 에로스(사랑)를 주제로 다양한 시선과 층위의 이야기를 엮을 수 있는 플라톤의 저서 『향연』에서 소크라테스는 욕망의 거울 속에서 욕망의 대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알키비아데스에게 거울이 만들어내는 환상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시각으로 진정한 사랑을 볼 수 있도록 가르쳐주려고 한다. 소크라테스의 에로스에 대한 연설을 따라가다 보면 대상을 직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욕망을 통하여 사랑을 알고, 『향연』에서 드러나는 욕망의 한계와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정확한 사랑의 실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II. 본론

1. 욕망이란 무엇인가

욕망이란 무엇인가. 소크라테스는 『향연』에서 아가톤과 논쟁하는 과정에서 욕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한다. “욕망하는 것은 자기가 결여하고 있는 것을 욕망한다는 것, 혹은 결여하고 있지 않으면 욕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필연적인지 숙고해 보게.”³⁾ 이에 따르면 욕망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결핍과 욕망 이 둘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욕망이 왜 결핍과 연결되는 지는 라캉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다. 라캉에게 있어서 욕망은 욕구와 사랑의 차이 속에서 이해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이 욕망하는 까닭은 인간이 생명 유지에 필요한 욕구의 충족이 반드시 대타자의 호출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기는 아직 미성숙한 존재로써 배고픔이라는 생물학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대타자를 호출하여 도움을 받아야지만 욕구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말이라는 언어적 수단을 통하여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일단 언어가 작용하게 되면 언어는 상실의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언어는 대상을 상징화해 소통될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하면서 의미의 세계를 건설하는데, 이는 실제 세계에 대한 배제 위에서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 일단 언어를 배우면 우리는 더 이상 대상에 대해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언어와 표상을 통해서 대상과 만나게 되는 것이다.⁴⁾ 따라서 부여된 의미는 요구와 완전히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어와 체계에 의해서 구성되는 세계는 언제나 결여라는 구멍을 남기게 된다. 이때 생긴 결여를 채우기 위하여 주체(아기)는 계속하여 대타자에게 요구를 하지만 어떠한 대상으로도 이 결핍의 공간은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다. 이 결핍으로 남은 부분이 바로 욕망이다. 즉 욕망은 결국 “주체가 상실한 존재, 즉 실재에 대한 갈망”⁵⁾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욕망의 발생은 『향연』에서 아리스토파네스의 연설에서도 잘 나타난다. 아리스토파

2) 임진수, 『네 가지 담화』, 파워북, 2010, p21.

3) 플라톤, 『향연』, 강철웅 역, 이제이 북스, 2001, p120.

4) 김석, 『무의식의 초대』, 김영사, 2010, p146.

5) 위와 같음, p157.

네스에 따르면, 인간은 본래 남남, 여여, 그리고 남녀(남녀추니)라는 세 가지 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형태는 전체적으로 구형이며 네 개의 팔과 다리 그리고 서로 반대 방향을 보고 있는 두 개의 얼굴 위에 한 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말한다. 즉 이 모습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 온전함은 제우스에 의해 둘로 나뉘었고, 둘로 나뉜 형태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본성이 둘로 잘렸기 때문에 반쪽 각각은 자신의 나머지 반쪽을 그리워하면서 줄곧 만나려 들었네. (중략) 우리의 옛 본성이 이제까지 말한 바로 이런 것이었고 우리가 온전한 자들이었다는 것 말일세. 그래서 그 온전함에 대한 욕망과 추구에 붙여진 이름이 사랑(에로스)지⁶⁾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잘려진 우리의 모습은 불완전하기에 반쪽 각각은 자신의 나머지 반쪽을 그리워하고 다시금 한 몸으로 있기를 욕망한다. 이 때 우리의 온전함에서 잘려나간 부분은 단순히 사람 한 명을 지칭하기 보다는 나를 자극시키는, 즉 나의 결핍된 부분을 환기시키는 모든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 상태, 아리스토텔레스에 말을 빌리면 온전한 상태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태어난 이후에 언어와 법과 같은 것들을 받아들여면서 사회화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이렇듯 인간은 문명에 의한 제제와 억압을 통해 잘려진 상태로 살아가고, 잘려진 부분들은 나를 무의식중에 자극하는 결핍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언젠간 우리는 이 결핍된 부분을 욕망하게 되는 것이다.

2. 욕망의 특성

따라서 욕망은 결핍 그 자체이고, 근원적으로 잃어버린 대상이다. 사실상 욕망에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욕망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욕망의 원인으로서의 결핍된 대상이 환상적으로 밖에 있는 대상에 투영된 것이기 때문이다.⁷⁾ 따라서 이는 어떠한 대상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고 다만 우리는 환상 이미지로 잠시 결핍의 구멍을 덮어줄 뿐이다. 욕망이 결핍으로부터 나온다는 주장을 통하여 욕망이 가지는 특성들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어떤 것을 욕망한다고 하면, 욕망이 투영된 대상이 나의 결핍을 채워줄 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게 된다. 대상의 있음이 나의 없음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고, 또 실제로도 그렇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소유하고 나아가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은 강렬하고 강하다. 하지만 쉽게 타오르는 것은 쉽게 사라지듯이, 나의 없음이 마침내 상대의 있음으로 채워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욕망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는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의 신기루를 보는 것과 같다. 오아시스가 존재한다고 믿는 장소로 도달하는 순간 눈앞에서 사라지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오아시스가 다시 등장하는 것이다. 이렇듯 환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마치 시시포스처럼 끊임없는 반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또한 욕망하는 존재는 욕망이 투영된 대상의 있는 그대로, 즉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을 파편적으로 바라본다. 다시 말해 자신의 충족이 중요할 뿐 타자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마치 욕망의 거울에 투영하여 환상을 보듯이, 일

6) 플라톤, 『향연』, 강철웅 역, 이제이 북스, 2001, p103.

7) 임진수, 『부분 대상에서 대상a로』, 파워북, 2011, p124.

방적으로 진행되며 타자와의 교류나 관계를 통한 존재의 고양은 찾아보기 힘들게 된다. 강렬한 욕망은 겉으로 보기에 위대한 사랑처럼 보일 수 있다. 또한 욕망하는 존재도 자기 자신이 사랑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때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다. 『향연』에서 알키비아데스가 말하는 사랑이 이를 잘 보여준다.

3. 욕망하는 알키비아데스

어느 누구든 그분이 진지할 때 열어젖혀서 안에 있는 상들을 본 적이 있는지 나는 모르네, 하지만 나는 이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것들이 내겐 아주 신적이고 황금과 같으며 아주 아름답고 놀라운 것들로 보였네. (중략) 내가 소크라테스 선생님에게 살갑게 대하면 이분이 알고 있는 바로 그것들 전부를 들을 수 있겠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지.⁸⁾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를 사랑하는가. 물론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를 전체 대상 그 자체로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소크라테스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소유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부분대상으로 욕망하는 것에 불과하다. 인용문에서 나타나듯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의 내면에 있다고 여겨지는 신적이고 황금과 같은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있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소크라테스의 담화를 통해 드러나는데, 그렇기에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의 담화를 들으면 때로는 심장이 뛰고 눈물이 나기도, 도망을 가기도 한다. 이와 같은 강한 통증과 같은 감정은 그가 가진 강렬한 욕망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어 주고 있다. 즉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가 담화를 통해 보여주는 지혜와 덕을 강렬히 욕망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소크라테스를 통해 충족될 수 있다는 환상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얻기 위하여 알키비아데스는 자신만의 방식, 즉 육체적 에로스로서 소크라테스를 사랑하고자 한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이 이루어지는 순간 사랑이라고 여겼던 그의 욕망은 다른 대상을 찾아서 이동할 것을 알기 때문에 알키비아데스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

내가 실은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자네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건 아닐지 더 살펴보게. 단언컨대 마음의 시각은 눈의 시각이 정점에서 내리막으로 접어들려 할 때 날카롭게 보기 시작한다네. 그런데 자넨 아직 이런 것들에서 한참 떨어져 있네.⁹⁾

또한 소크라테스는 알키비아데스에게 자신에게는 그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대상이 없으며, 단지 상상으로 만든 투영에 지나지 않음을 상기시켜 준다. 또한 육체적 에로스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눈의 시각의 정점, 즉 욕망의 정점에서 내려와서 환상에서 탈피하는 시점이 진정한 사랑이 시작임을 넌지시 말해주고 있다.

4.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사랑

그렇다면 욕망으로 만들어진 환상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 『향연』에서 소크라테

8) 플라톤, 『향연』, 강철웅 역, 이제이 북스, 2001, p159~160.

9) 위와 같음, p164

스는 에로스(사랑)에 대하여 디오티마라는 타자의 목소리를 빌려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소크라테스는 에로스를 ‘중간자’라고 정의한다. 왜냐하면 에로스는 포로스(방도)와 페니아(곤궁)의 결합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에로스는 어머니의 본성을 따라 곤궁하고 결핍과 함께 살며 방도가 없어 보이지만, 아버지의 본성도 함께 가지기 때문에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가질 방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로스는 방도가 아예 없지도 않으며 부유하지도 않고, 지혜와 무지 사이에서 존재한다. 이러한 에로스의 탄생 이야기는 사랑이 “무엇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의 문제로 시작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¹⁰⁾ 이렇듯 에로스는 어떤 것의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에로스는 자기가 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욕망한다. 하지만 에로스는 단순히 결여를 욕망하는 것과는 다르다. 에로스는 나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 그럼 내가 당신에게 말해 줄게요. 이것은 몸에 있어서 그리고 영혼에 있어서 아름다운 것 안에서 출산하는 것입니다.¹¹⁾

이 아름다운 것들에서부터 시작하여 저 아름다운 것을 목표로 늘 올라가난 것 말입니다. 마치 사다리를 이용하는 사람처럼 그는 하나에서 둘로, 둘에서부터 모든 아름다운 몸들로, 그리고 아름다운 몸에서부터 아름다운 행실들로, (중략) 즉 다름 아닌 저 아름다운 것 자체에 대한 배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침내 그는 아름다운 바로 그것 자체를 알게 되는 거죠.¹²⁾

에로스의 나아감이란 몸과 영혼에 있어서의 출산을 의미한다. 출산이란 사랑의 주고받음이 발생하는 접촉의 순간, 교류로 인하여 발생하며 아름답고 창의적인 것들을 생산하여 유한자인 인간이 존재의의를 영원히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준다. 몸과 영혼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에로스는 육체는 등한시 한 채 영혼만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육체가 존재하고, 육체를 사유해야지만 영혼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단지 육체에 머무르고 함몰되는 것을 경계할 뿐이다. 아리스토파네스와 알키비아데스의 연설에서 나타나는 욕망과 비교해 본다면 욕망으로 이루어진 관계는 육체에 함몰되기 쉬운, 수평면에 존재하는 끊임없는 반복의 굴레이다. 욕망하는 대상을 향한 환상에 압도되어 내가 누구인지, 내 앞에 대상 혹은 타자가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오고 가지 않는다. 하지만 에로스는 수직적인 구조로, 마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과 같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과정에서 존재가 고양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에로스의 화신이라고 여겨지는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이야기를 디오티마라는 타자를 통해 말한 것도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자신 안에 타자의 목소리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이 나로 가득 차 있지 않다는 것, 열림(결핍)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무언가 없음으로 시작하지만 이 결핍을 있음으로 채우기 위해 욕망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없음이 있기에, 또한 없음은 더 이상 없어질 수 없기에 “격렬하지 않지만 무언가 고요하고 단호한 일”¹³⁾이 일어날 수 있음을 그는 알고 있다.

10) 신형철, 『정확한 사랑의 실험』, 마음산책, 2014, p26

11) 플라톤, 『향연』, 강철웅 역, 이제이 북스, 2001, p136

12) 위와 같음, p146

13) 신형철, 『정확한 사랑의 실험』, 마음산책, 2014, p26

Ⅲ. 결론

덤블도어는 해리에게 말한다. “그럼 내가 설명해주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거울을 보통 거울처럼 사용할 수 있단다. 즉, 그것을 들여다보면 정확히 자신의 현재 모습을 보니까 말이다.”¹⁴⁾ 욕망의 거울을 통해서 사람들은 기쁨을 얻는다. 하지만 욕망의 거울을 마주한 사람들은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은 기쁨과 동시에 슬픔을 느낀다. 슬픔을 느끼는 것은 거울에 비치는 상이 주는 것은 환상적 기쁨에 불과하다는 것을, 근원적 결핍은 결코 채워질 수 없음을 사실 무의식중으로 알기 때문이 아닐까? 욕망의 거울을 보통 거울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대상을 바라볼 때 나의 욕망을 투여하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즉 환상으로 이루어진 타자가 아니라 진정한 타자를 마주하는 행위이다. 내가 사랑이라고 하고 있는 행동이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에 나의 욕망 채우기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는지, 대상이 나의 결핍으로 인해 상상적으로 만들어진 진실 되지 않은 대상일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내가 결여한 부분을 대상에게 투영하여 이상적인 모습으로 사랑의 대상을 만들어도 그것은 이내 사라질 환상에 불과한 것이다. 환상이 가능하지 않음을 직시하는 것은 슬픈 일 일 수도 있으나 사실은 환상이 만들어내는 안개를 걷어내면 그 자리에는 결핍만이 남은 것이 아니라 사랑이 발생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14) 조앤 k. 롤링,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문학수첩, 김혜원 역, 2001, 제1권 Ⅱ, p79.

참고 자료

플라톤, 『향연』, 강철웅 역, 이제이 북스
조앤 k. 롤링,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김혜원 역, 문학수첩
임진수, 『네 가지 담화』, 파워북
김석, 『무의식의 초대』, 김영사
임진수, 『부분 대상에서 대상a로』, 파워북
신형철, 『정확한 사랑의 실험』, 마음산책